

남원시 요천 통합하천사업 '순조'

치수·친수사업 진행 보고회 총 562억 투입 재해 예방 등 광한루원 앞 도로 공원화 계획도

남원시를 가로지르는 광한루원 앞 요천에 대한 치수와 친수 등 통합하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홍수와 재해를 예방하는 치수사업의 경우 국비 312억원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시민들을 위한 친수사업은 25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치수사업은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는 육역과 대책, 동동 인도교 건너편 홍수터 조성, 요천 지류하천 교량 4개소, 토사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보의 부분 가동보화 8개소, 배수시설물 개량 등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맡는다.

친수사업은 춘향교-승사교 구간 포차거리 조성, 승사교 하류 시민공원 및 파크골프장을 위한 둔치 조성 등을 남원시가 추진한다.

시는 2023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지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사업 전 구간에 대한 현황조사와 측량을 완료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해 왔다.



최경식(왼쪽 첫번째) 시장이 지난 29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시 요천 통합하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내실있는 용역수행을 당부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의 완성도 향상과 실시 설계 방향에 대한 정립을 위해 최경식 시장을 포함한 16개 부서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실용성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광한루원과 요천, 함파우 아트밸리를 잇는 핵심 관광축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광한루원 앞 도로의 차로폭 조정을 통한 공원화를 동시에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한루원에 집중돼 있는 거점

관광 효과가 요천을 통해 함파우 아트밸리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꼼꼼한 실시설계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요천 수변공간과 광한루원 앞이 축제와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기업 민원 '일사천리' 처리

9개 부서 신속처리단 구성...공장 입주 계약 등 신속 처리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조성하고자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미래산업과 등 9개 부서 9개 팀 18명이 투자기업과 민원 기업의 공장 입주 계약 체결, 공장등록 및 입주계약 변경 등 기업 관련 인·허가 및 기타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그간 공장등록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접수 후 보완이 이뤄졌고 일부 보완사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기업은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시는 사전 컨설팅과 신속한 보완 이행, 조건부 승인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연 4회(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애로의 즉각적인 해소와 각종 사업의 안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정서 정읍시 미래산업과장은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기업 맞춤형 신속 민원 해결로, 사·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정읍에 투자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갯벌 수려한 경관 속 희귀 조류 찾기

철새 관찰하고 사진 촬영 '빅버드레이스' 3~5일 32개팀 참가

고창군이 오는 3-5일 상하농원과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3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를 개최한다.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는 전국 각지의 탐조인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을 무대로 철새를 직접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 탐조대회이다. 참가자들이 기록한 철새사진을 바탕으로 조류 서식현황을 매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일 온라인 참가접수가 시작됐지만 신청자가 몰려 당일 오전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고 총 32개팀 124명의 참가자가 신청을 완료했다.

고창갯벌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 약 120개채만 존재하는 '빨레비갈매기'

를 비롯한 '알락꼬리마도요', '큰뒷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에 처한 법정보호종을 관찰할 수 있다.

군은 올해도 탐조 기초교육 진행을 통해 탐조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고창갯벌 외 운곡습지·선운산도립공원 등을 비롯한 고창군 내의 다양한 탐조포인트로 안내해 외부에서 온 참가자들이 고창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종 생태체험 부스 운영과 샌드아트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 마지막 날에는 '빅버드레이스 시상식' 겸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기념식'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공공배달앱 위메프로 4~6일 600명에 할인쿠폰



정읍시가 공공배달 앱 '위메프로(사진)'의 출시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시행한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4-6일 연휴기간 1일 200명씩 총 600명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1일부터 20일까지 공공배달앱 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릭터 인형(오사장, 포미)을 선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5월 한달 배달료 최대 2000원 할인쿠폰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민선 8기 핵심공약 사업인 '정읍형 공공배달앱'은 지난해 5월1일 출시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배달 주문 11만5000건, 매출 31억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사랑을 얻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이벤트를 통해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복분자 살리기' 무병묘 무상 분양



자체생산 복분자 무병묘 첫 분양현장을 찾은 심덕섭(가운데) 고창군수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복분자연합회에 현장실증용 제공 내년부터 매해 2만주씩 공급키로

고창군이 자체 조직배양기술과 시설 양액재배를 통해 육성된 복분자 무병묘 4000주를 고창군복분자연합회에 현장실증용으로 무상분양한다.

내년부터 해마다 2만주씩을 공급해 복분자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창복분자는 지난 1997년 18ha에서 10년만에 80배 이상 급증했으며, 주류와 음료산업으로 확산

되어 지역 특작작물의 활성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도부터 여름철 폭염과 폭우, 태풍 및 겨울철 한파 등의 이상기상으로 인해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248ha까지 줄면서 위기를 맞았다.

고창군은 이에따라 복분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무병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조직배양기술을 이전받아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향이·몽이' 관광캐릭터 최우수 마스코트

남원시, 대표축제 박람회 수상

남원시가 지역 관광캐릭터 '향이·몽이'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마스코트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마친 '향이·몽이' 캐릭터는 남원고을의 춘향과 몽룡을 따라다니는 고양이 '향이'와 강아지 '몽이'를 감쪽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한 캐릭터다.

향이와 몽이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캐릭터 사이에서 사전·현장 인기투표, 장기자랑 투표에서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아 최우수상(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캐릭터로 활동한 지 만 1년이 안 된 짧은 기간, 지역 관광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에서 대중에게 알리고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향이·몽이'가 점차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역 캐릭터로서의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제4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마스코트 콘테스트에서 남원시 관광캐릭터 '향이·몽이'가 최우수상을 받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관계자는 "축제를 즐기기에 가장 아름다운 5월 춘향제 기간에 남원을 방문해 귀여운 향이·몽이와 함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